

우리 옛지도 집대성한 '지도박물관'

「韓國의 古地圖」 펴낸 이찬 교수



고지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해온 우리 선조들의 국토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프리즘이다. 그런 점에서 이찬교수의 이 책 「한국의 고지도」는, 고지도가 그리고 있는 우리 국토의 자화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찬 박사.

“지도란 지표상의 공간적인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도에 그려진 정보는, 지표상의 모든 정보가 아니라,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나 지도작성을 주도한 집단의 세계관에 따라 선택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고지도는 오늘의 우리와는 다른, 그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지리적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우리 옛지도의 발달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의 고지도」(범우사)를 펴낸 이찬 교수(69, 전 서울대 지리학과 한국역사지리학회 회장)는, “고지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해온 우리 선조들의 국토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프리즘”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이 “고지도가 그린 국토의 ‘자화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옛지도의 '계보' 담은 지도박물관

타블로이드판 400여쪽의 대작인 「한국의 고지도」는, 우리 지도발달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옛지도 235점을 천하도·관방도·조선전도 및 도별도·도성도·군현도·회화지도·山圖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시대별로 나누어 옛지도의 역사와 '계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한 '지도박물관'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회화지도와 산도이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국가방위나 행정목적에 의해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성에 그 생명이 달려 있다. 그러나 회화지도는, 같은 지도의 공리적 목적과는 달리 풍경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市街의 모습과 자연경관을 예술적으로 그려 장식이나 감상용으로도 쓰인, 말 그대로의 의미로서 '그림' 지도다.

산도는 일종의 墓圖이다. 전통적으로 명당을 조상의 묘로 써야만 가문에 영광이 있다고 믿어, 족보에는 으레 산도가 있었다고 한다. 문중의 묘역 전체를 나타낸 산도가 있을 정도로, 풍수사상의 영향력을 짐작케 하는 지도다.

비록 흑백도판이었지만, 77년 나라 안팎에 흩어져 있던 고지도를 한데 모아 「한국의 고지도」라는 책을 냈던 경험이 있는데도, 이교수가 이번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새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다른 문화재와 달리 지도가 새로 발견되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새롭게 발굴된 고지도를 수소문해 자료 가치를 제검토하고 이번 책에 수록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왕에 알려진 고지도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이라고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간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지도가 다수 소개되어 있어 관계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청북변성도’ ‘수선총도’ ‘기성도’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등속이 이 교수의 혜안으로 ‘무명’의 설움을 씻는 화제의 지도다. 이 가운데 이교수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지도는 178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평북지방의 군사지도인 ‘청북변성도’이다.

남다른 애정으로 술한 일화도

이교수가 이 지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은 책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오랫동안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그 존재여부조차 몰랐던 이 지도가 진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전언을 듣고, 급히 진주로 내려가 고증과 함께 사진촬영을 마쳐 겨우 이번에 실을 수 있었다. “그 해후가 가히 극적이었던 것”이다.

이교수의 옛지도에 대한 ‘열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화는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현존하는 동양 最古의 세계지도다. 한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나라 지도와 합성한 ‘다국적’ 지도이지만, 콜럼버스 신대륙발견 이전에 완성된 지도로 당대의 어떤 지도보다 정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원본은 전하지 않고 필사본이 임진왜란을 전후해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류코크(龍谷)대학이 소장하고 있다. 이를 늘 안타깝게 여겨온 이교수는 70년대 후반부터 사진촬영이라도 해 이 지도의 윤곽이나마 국내에 소개하고자 했지만, 소장대학의 비협조로 번번이 실패했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이교수가 낙담하고 있을 때, ‘코리아연구회’의 한 일인교사가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이가 부분촬영해 보낸 열장의 사진을 잇자 지도의 ‘꼴’이 드러났지만, 사진상태가 나빠 지도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이때 이교수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사진을 밑그림 삼아 지도를 필사하는 것. “미련스럽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 82년 동양화가와 함께 이 지도의 ‘복원사업’을 마쳤다.

고지도를 연구하다보니 그것을 수장할 기회도 몇차례 갖게 되었다는 이교수는, 어느날 우연히 골동상인에게 조선 영조 때의 지리학자인 정상기의 지도를 “생각보다 무척 싸게” 산 적

이 있었다. 황재를 한 셈이다. 그러나 며칠후 골동상은 이교수에게 와 문제의 지도를 되돌려달라고 때를 썼다. 알아보니 장물이어서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귀한 것을 잃어버린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서 돌려준 뒤 얼마 안돼, 아뵐사, 이교수는 다시 이 지도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두어 사람의 손을 타 값이 엄청나게 났 다음이었다. 속은 것이 내심 분했지만 이교수가 이 지도를 되산 것은 물론이다.

이번 책을 위해서 이교수가 찾아나선 곳은 수없이 많았다. 조선시대 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 규장각은 물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샅샅이 뒤졌다. 문외한들에게는 의외지만, 송실대 기독교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는 고지도의 ‘광맥’이었다. “조선후기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제작한 지도가 이 박물관에 상당수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산·물줄기 과장된 것이 특징

이교수는 고지도의 시기적 상한선을 “기록상으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하는 것이 없어” 앞서 말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만들어진 1402년으로 잡고 있다. 반면 하한선은, 그 이후부터는 현대식 경위선을 사용한 지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910년으로 잡고 있다.

이같은 견해에서 볼 수 있듯,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고지도는 거의 조선시대의 것이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전해오는 지도가 조선시대 것뿐이어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시절에 지도가 가장 활발히 제작돼, 우리 옛지도를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조선시대에 들어서 지도제작이 활기를 띤 까닭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새롭게 개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옛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자세하게 그렸다는 것이고,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특히 하천의 넓이가 과장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산과 물의 줄기가 중요한 교통로이자 군사도로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길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풍수적 사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교수가 역대 지도 제작자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인물은 조선 전기의 정척과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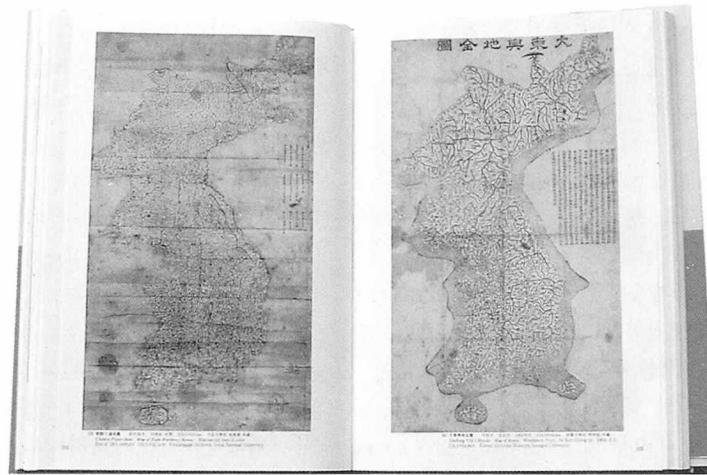
지, 그리고 후기의 인물로 정상기와 김정호이다. 앞의 두사람은 옛지도의 '뼈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리고 뒤의 두사람은 선대의 역량을 디딤돌로 삼아 축적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교수는 "김정호 그 다음이 없었다"고 안타까워 한다. 면면히 이어온 우리 지도 제작사의 맥이 그를 끝으로 사실상 끊겼다는 것이다.

세계를 근대사회로 이끈 견인차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교수는, 당연히 지도라고 말한다. 미망의 터널 속에 갇힌 인류를 문명의 숲으로 이끈 세계적 '나침반'이 바로 지도라는 답이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콜럼버스 일화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익히 알려져 있듯, 신대륙의 발견자는 콜럼버스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첫발을 내딛은 대륙이 인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달걀을 탁 자위에 세운 천하제일의 콜럼버스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톨레미의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면 인도가 나온다고 그려져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문제의 콜레미지도를 가지고 항해한 것은 물론이다.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서 지도가 "가장 중요한 계몽수단"이었다는 이교수의 지론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야기다.

우리 지성사에 일대 타격을 가한 지도는 17세기 이후 실학자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진 한역서양지도들이다. 이같은 지도를 통해 세계는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뉘어 있고,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동양중심적 사고와 중화



「한국의 고지도」 중 왼쪽은 「조선팔도지도」 오른쪽은 「대동여지전도」

사상이 그 근저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가 대표적인 예다. 북경에서 16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이듬해 사신으로 갔던 이광정과 권희가 국내에 들여와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한다.

“다음엔 地誌 중심의 책 펴낼 생각”

우리 지리학계의 간판격인 이교수가 고지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68년. 당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가 기획한 '민족문화대계'의 '한국지리학사' 부분 필자로 이교수가 결정되면서부터다.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다음 미국에서 문화역사지리학을 전공한 이교수로서는 무척 당혹스런 순간이었다.

그러나 막상 연구소에서 떠넘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씨름을 하면서 어떤

사명감과 함께 우리 옛지도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때 고지도들을 연구하는 선배학자들은 대부분 역사학자나 과학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구적 연구업적에다 지리학적 연구성과를 보태어 그것의 의미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이교수는 이 책의 편집과정에서 남모르는 감회에 빠지곤 했다. 새삼 '옛' 지도와 이즈음 지도의 차이를 느끼게 된 것이다. 고지도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이 없다. 1923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평양사범을 졸업할 때까지 유년시절을 북녘땅에서 보낸 이교수는 “그래서 지금도 눈에 선한 평양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린 '기성전도'나 평안도지도 같은 고향부근의 지도를 보면서 그 시절을 회상하곤 했다”고 이교수는 88년 정년을 맞아 대학강단을 떠

날 때까지 우리 지리학계의 수장으로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이교수는 정년 이후 “오히려 '正'년을 맞은 듯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며, 역사지리학회가 주관하는 '한국의 전통 지리사상' 강좌에 줄곧 강사로 참여하는 등 “여전히 현역시절과 다름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교수는 프로필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은 68년부터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사회과부도 집필에 참가해온 사실. 아마도 빛바랜 추억의 앨범을 넘기다 보면, 이교수가 필자로 참가한 지도책을 펼쳐놓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상상으로 여행하는 당신의 모습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교수는 중고등학교의 지리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리교목은 국민적 교양의 '만물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제도 아래서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지리시간이 아니라 무조건 암기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지난 1년간을 「한국의 고지도」와 함께 보냈다는 이교수는, “이번에 지도가 중심이 된 책을 펴냈으니, 다음엔 地誌적인 내용의 책을 펴낼 생각”이라며, 가제를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책」이라고 정했다고 노익장을 과시했다

이권우 「역사산책」 기자

인간과 자연,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녹색의 이야기들

가우디의 바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이 지구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서 바라보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녹색의 지구—지구는 지금 결코 무사하지 않습니다. 여우깡깡이가 그렇게도 부러워했고 그렇게도 되고 싶어했던 인간, 그 인간이란 존재 때문에 지구는 이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가우디의 바다》에서 인간과 지구의 앞날의 캄캄한 절망을 읽고, 희망은 어디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가우디의 바다》— 이 책에는 인간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메시지가 담긴 여섯 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우깡깡이의 슬픔, 눈 오는 산, 가우디의 바다, 캄캄한 전설, 사막의 공룡, 누군가.

• 이 책 《가우디의 바다》의 종이가 어수룩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재생지를 썼습니다. 디지털 신지 지음 / 디지털 구조도 그림 / 최서림 옮김 / 값 3,500원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의 신간

•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스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어니스트 칼렌바크 환경미래소설

에코토피아

에콜로지Ecology+유토피아Utopia—생태학적 이상향 혹은 환경낙원

정교한 과학적 상상력으로 구축해낸 인류의 미래상

21세기의 어느 무렵 비연방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생태학적 이상국가 에코토피아의 사회상을 그린 고전적 환경미래소설. 미국으로 상정되는 기존 산업사회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에코토피아로 상정되는 새로운 사회상을 모색한다. 미래사회의 대안적(alternative)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사회의 생태학적 환경정책 및 기간 산업에 중대한 영감과 시사를 준 미래소설의 걸작.

어니스트 칼렌바크—H. G. 웰스, 윌 베른, 윌러드 헉슬리, 조지 오웰이 뒤이어 나타난 이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김석희 옮김 / 4,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